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최 혁 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7대 원칙

1)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조합원) 경제·문화·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창립

2)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음.

3)협동조합의 7대 원칙 (ICA 1995)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유훈과 독립(신설)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간의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신설)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탄생은 협동조합 7원칙 가운데 여섯 번째 원칙인 ‘협동조합간의 협동’, 일곱 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원주 사회적경제 운동의 역사

- 지학순 주교·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 ⇒자유권 + 생존권 ⇒ 협동조합운동
- 협동조합운동 : 지역자립의 경제기반을 만들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목적
- 주요연보
 - 1965년 천주교 원주교구 설립, 지학순 주교 부임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65)
 - 대성학원 설립(1954년) 등 사회운동가 장일순(요한)과 만남
 - 1969년 진광학원 부설 협동조합 연구소
 - 1972년 밝음신흥 설립
 - 1972년 남한강 대홍수 발생
 - 1973년 서독으로부터 구호자금 총 291만 마르크(약 3억6천만 원) 도입
 - ‘원주교구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개발사업 시작
 - 단순한 구휼이 아니라 마을단위의 공동체운동과 자립, 협동조합운동을 병행
 - 1976년 원주선언. 반독재민주화운동. 원주캠프.

- 1985년 6월 24일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현 한살림) 창립
- 1989년 4월 3일 생산자 중심의 호저소비자생활협동조합(현 원주생협) 창립
- 1999년 6월 13일 원주 나눔의 집 설립
- 2001년 7월 1일 원주자활후견기관 설립(현 원주지역자활센터)
- 2002년 5월 4일 밝음신협과 한살림, 원주생협 발의로 ‘원주의료생협’ 설립
- 2003년 6월 5일 밝음신협 제안으로 8개 단체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 2003년 9월 1일 협의회 신문 ‘원주에 사는 즐거움’ 창간
- 2005년 8월 원주가톨릭농민회 회원단체 가입
- 2006년 6월 일본 S-COOP OSAKA 제안으로 GMO FREE ZONE 운동
- 2006년 11월 ‘지역을 창조하는 협동조합 운동’, 한일 국제협동조합 포럼
- 2006년 12월 상지대 생협 회원단체 가입
- 2007년 3월 참꽃어린이 교육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노인생협 회원단체 가입
- 2007년 10월 원주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 개설
- 2009년 6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개편
- 2010년 7월 29일 갈거리사랑촌, (주)살림농산, 문화생협 회원단체 가입
-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 노나메기, 사회적기업 다자원 회원단체 가입

■ 협동조합운동 대전환의 계기

- 석탄사업의 몰락과 이농 등으로 인한 기존 신흥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의 침체
 - 1980년 신군부 세력에 의한 탄압 → 지역협동조합운동의 리더그룹 해산
- ⇒ 도농 직거래를 기반으로 소비자과 생산자 연대를 조직하는 협동조합 모색

-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 심화로 민중 생존권 악화
 - 농업의 몰락 및 환경문제 대두
 - 실업의 가속화 및 도시빈민 증가
 - 협동조합 간의 협동 필요성 대두(기존 협동조합 간 경쟁이나 마찰의 폐해)
- ⇒ 협동조합의 공동대응 필요성 대두로 인해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 국가 차원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확산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 대두
-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실업빈곤문제, 고령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도전을 창조할 필요성이 생겨남.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확대·개편

3.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배경

1)배경 - 대안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회

최근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으며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열정 또한 많이 쇠락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초기 운동가들의 연로와 후진양성의 미흡, 신자유주의와 제1금융권의 팽창, 정부개입의 증가, 조합원 활동의 위축, 새로운 협동조합 정책 및 이론 생산의 미흡 등 운동과 경영 양측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지역의 협동조합들은 아직까지 변변한 논의 틀조차 갖추지 못하고 각개 약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운동 자체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오히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운동이 펼쳐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장위주의 현실 시장경제가 세계도처에서 빈부격차의 확대, 생태계의 극심한 파괴, 실업의 증가 등의 모순을 보이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원주지역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확산, 영세 상인들의 몰락 그리고 농업이 급속히 몰락하면서 원주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주민복지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 협의회와 산하 협동조직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대안사회의 실현입니다. 대안사회는 더 이상 우리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야할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자본에 대항하여 주민참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그린비즈니스를 확대하여 생명의 도시에 걸맞은 산업시스템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경제의 이윤은 지역복지의 개선을 위해 환원되어 진정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서 노력할 것입니다. (2003년 6월 5일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취지문)

2)10대 사업 과제 (2003년 설정한 과제)

- ① 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활성화
- ② 조합원 참여의 확대
- ③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 ④ 지역대학과의 교류증진
- ⑤ 협동사회연구소 설립
- ⑥ 신규 협동조직의 설립지원
- ⑦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 ⑧ 녹색도시의 기반마련
- ⑨ 교육과 문화 활동의 기회 확대
- ⑩ 참여와 자치의 지역사회건설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가 설립되던 시절의 문제의식을 담은 10대 사업과제로서 현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조직비전이 확장된 시점에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3월 19일 지역 심포지움이 그 계기가 될 것임.

3)진행한 주요 사업

■네트워크 강화활동

- 정례회의 개최(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 임원연수회 개최
- 체육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일주에 사는 즐거움’ 발행 : 지역의 독립매체 및 사회경제 활성화 정보 매체

■국제교류 활동

- 한일 협동조합 간 교류 : 일본 오사카 S-COOP 및 오사카 키타리생협연합회 교류, 일본 생활클럽생협 연합회와 교류
- GMO FREE ZONE 운동 시작
- 기술연수 : 일본생협 산하 소시지공장 및 술공장에 기술연수생 파견
- 미국 WAP 사업연수단 참여 (텔라웨어 대학교)
- 캐나다 퀘벡지역 사회적경제 연수단 참여
- 2010년 6월 : 이탈리아 볼로냐 및 트렌토지역 협동조합 탐방

■ 농업살림, 생명살림운동 추진

- 학교급식조례, 친환경농업지원육성조례, 원주로컬푸드조례, 원주로컬푸드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 친환경급식 단계별 추진 합의(2008년 원주시와 협약, 현재 진행중)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개소(2008년 - 친환경쌀 공급사업, 로컬푸드 식당 운영, 결식아동친환경급식)

- 친환경 농가공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 원주로컬푸드 운동 :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교육, 환경, 사회복지 운동 ⇒ 전국 최초로 2009년 12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식량체계 구축, 원주푸드 종합처리센터 추진 : 원주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 원주푸드 종합처리센터 추진 : 원주 푸드는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주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 지역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활동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진행 (2008년부터 매년 실시)
- 신규 사회적기업 설립 및 경영지원 (수시)
- 지자체와 거버넌스 구축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의 확대·발전(2009년 6월)
- 2011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 사회적경제 불목화를 위한 지역 심포지움 개최 (미래비전 및 의제 설정, 전체 사회적경제 단체들 협약체결)

⇒사회경제 영역 확대 발전을 통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건설

⇒지역사회의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 생산, 소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

4. 회원단체 현황

1) 전체 현황

17개 단체 3만 800명의 조합원 (중복 조합원 포함 원주인구의 10%)

→ 2011년 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가입을 완료하면 20여개 단체로 확대 될 예정

2)유형(정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동체 운동기관 등)

■ 신용협동조합 - 밝음신협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원주의료생협(사회적기업), 상지대 생협, 노인생협(사회적기업), 문화생협, 삼도생협, 소꿉마당, 참꽃어린이교육생협

■ 공동체 운동기관 - 성공회 원주나눔의집(공동체 기금), 갈거리사랑촌(갈거리협동조합), 원주지역자활센터(누리협동조합)

■ 기타 단체 - 가톨릭농민회, (주)살림농산

■ 협력 단체 -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 기타 회원 사회적기업 - 유한회사 다자원, 사회적기업 햇살나눔

■ 신규가입 준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행복한시루봉, 친환경급식 맞두레

조직명	창립연도	주요활동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1972년	조합원 약 1만6천700명, 자산 830억(2009년 12월31일 현재), 자본금 47억 원, 지역사회 공헌 사업 및 서민경제 버팀목
원주생활협동조합	1989년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하는 생활협동조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통한 생활공동체 지향. 조합원 생산자조합원 200명, 소비자조합원 1천200명(2009년말), 총사업규모(2009년) 21억7천여만원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1985년	조합원 5천400여명(2009년 말). 공급액 32억2천500여만원(2009년 말),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통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과 함께 지역살림을 위해 노력
남한강 삼도생활협동조합	2003년	조합원수 130명(2009년 12월). 삼도(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접경지역인 부른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명농산물 직거래 활동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2002년	조합원수 1천680명(2009년 말), 매출 12억1천여만원(2009년 말), 출자 7단계(2004년 말). 의료의 본질적 가치인 건강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1999년	후원회원 200명(2009년 말).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원주자활센터	2001년	64명의 자활근로사업단, 10명의 자활공동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고용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1999년	25가구(2009년 12월). 학부모인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 터전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교육자치 공간. 보육과 교육
원주가능영농조합법인	1976년	가톨릭농민회강원지구연합회로 출범. 출자회원 88명, 조합원 250명(2009년 12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1천100여명(2009년 12월),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와 노인 일자리 창출위한 사업 전개, 깨끗한 학교 만들기, 택배사업, 소독방역사업, 식당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음
상지대학교생활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3천200여명, 학생, 교직원, 교수를 조합원으로 해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의 공급과 구매 사업, 조합원의 조합 사업에 대한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사업과 조합원 및 일반 대학인에 대한 홍보사업 등을 펼침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13가구, 대안교육기관 - 자녀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생명을 일깨우며 살아가기 위한 환경 및 양육·교육 내용을 공유·창출하는 활동
문화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7년	조합원 350명,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 '생활이 문화, 문화가 생활' 사업 추진 및 미품(美品)을 통한 매장 추진
갈거리사랑촌	1991년	91년 갈거리사랑촌 개원, 97년 12월 십시일반 개원, 98년 원주노숙인센터 건립, 2004년 9월 갈거리협동조합 창립, 지역 복지사회 구현
(주)살림농산	2008년	87년 원주 한살림 참·들기를 공장 축성, 2008년 6월 원주 한살림에서 (주)살림농산으로 법인 분리

5.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조직

- 총회 : 단체 3인(대표자, 실무자, 추천1인) + 각 위원회 위원장 + 사무국
- 이사회 : 각 단체 대표자로 구성
- 집행위원회 : 각 단체 실무책임자 + 사무국장으로 구성
- 위원회 : 정책위원회, 지역농업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원사즐편집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 설립 검토 중
- 사무국 : 사무국장

6.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1년 주요사업

- 사단법인 설립 - 네트워크의 사단법인화
- 회원단체 확대 - 친환경경급식맛두레, 햇살나눔, 기타 육성지역 사회적경제 단체들까지 가입확대 예정
- 부문별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위원회 및 교육복지위원회 등
- 교육사업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및 인문학 강좌, 실무교양 강좌
- 협동기금 설치 및 운영
 - 신규 협동조합 및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 한살림 5% 협동기금 적립 제도화, (주)살림농산 매년 1천만원 기부
 - 위원회 설치 : 운영정관, 재원충당 방안 등 마련
 -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
- 원주에 사는 즐거움 안정적 발행

■원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년 제정)에 근거한 원주지역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업무위탁

- 사회적경제 포털 사이트(2010년 구축) 강화

-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축제 준비

- 청년사회적기업 양성기관 추진 (공모위탁 확정)

- 권역별 지원기관 및 청년사회적기업 양성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전략모델사업 추진 (농식품 가공, 다문화 레스토랑 등)

- 사회적 경제지표 조사 정례화 (매년 정례보고서 제출예정)

■새로운 지역 모델 비전 찾기(이탈리아 트렌토 지역 모델)

■활동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

- 생협법 부분개정운동 (비조합원 이용금지조항 철회, 비영리법인 단서조항 삭제 철회, 임직원 겸직금지조항 철회 등)

-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연대협동조합법 제정운동

- 지방정부 내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원주푸드 육성 → 지역식량 체계 구축 및 원주푸드 종합처리센터 설립 등

7.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비전

■ 사회적 협동조합

- 기아 및 식량 문제 대응,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 상업적 성공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보전자 역할로서의 임무 확대

■ 민주주의와 연대성의 사회건설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전략 강화 (상호출자, 상호이용, 공동 프로젝트, 인적물적자원 공유, 상시적 경영지원체계 구성, 연대금융조성 등)
-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체계 확립
-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참가형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경제운동의 기본원칙 준수

- 1) 이윤보다 회원과 공동체를 위한 운영 2)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3) 민주적 경영(1인 1표) 4)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의 우위 5) 참여의 원칙과 사회적공공성의 강화

8. 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 원주지역 사회적경제 불목화를 위한 성장지원사업 추진 중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원주지역 사회경제 조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조합원 및 회원연계 등을 통한 상호부조시스템 개발 중
 - 물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사회경제장터(소평물) 구축
 - 협동카드(가칭) 등을 통한 조합원 및 회원, 임직원의 물품 및 서비스 이용 독려 시스템 (현재 연구사업 진행 중)

■ 생협법 개정에 따른 원주지역 생협단체 대응방향

- 2010년 10월 20일 생협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 2010년 12월 9일 네트워크 3차 집행위 - 6개 생협단체 간 조율하기로 합의
- 2010년 12월 28일 : 6개 생협단체 실무책임자 회의

△협동기금 적립 : 각 단체 총회 안건으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

△업무협약 : 생협법 제46조(사업의 이용)과 관련해 6개 생협단체가 상호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로 함.

△협동의 집 건립과 현금 유동성 공유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함.

△생협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시 사회적경제 조직 서비스와 생산물 우선구매 조항 넣기로 함.

△생협법 제45조(사업의 종류)와 관련해 다중 조합원 이용 매장 건립과 공산품 취급의 원칙을 합의해 나가기로 함.